



3면  
도, 정치권과 국가예산총력 대응

# 전주매일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음 9월 17일) 제337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주의 관문, 스포츠산업 중심지로

우범기 시장,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발표

전주의 관문인 호남제일문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가 수준 높은 경기관람과 스포츠 체험, 힐링, 나들이 등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스포츠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된다. (권영기 기자 16면)

전주 북부권인 이 일대가 복합스포츠타운과 연계해 전주의 새로운 대표관광지로 거듭나면 국가대표 여행지인 남부권 전주한옥마을과 현재 대규모 관광병소화 사업이 추진 중인 동부권 이중호수와 중부권 덕진공원, 젊음과 문화로 가득한 서부권 서부신시가 지 등 권역별 핵심 관광거점이 모두 갖춰져 전주가 체류형 관광도시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범기 시장은 30일 호남제일문 인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현장 브리핑을 통해 "관광객 수용이나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채우기 위해서는 한옥마을에 국한하지 않고 이중호수, 덕진공원, 신시가지 등을 비롯해 북부권에도 새로운 관광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며 "호남제일문이 위치한 북부권을 전주별전의 거점공간이자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 시장은 오는 2040년까지 호남제일문을 중심으로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 약 88만2,074㎡ 부지에 국비와 민간투자 등 총사업비 1조 3,772억원을 투입하는 2040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대표관광지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체육시설 집적화 △문화관광 기반시설 구축 △스포츠 관광 콘텐츠 개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의 4대 전략을 기반으로 총 17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기존 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해 현재 공사 중인 중앙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드론스포츠센터, 장애인체육복지센터와 향후 추진할 국제수영장까지 총 8개 체육시설을 집적화하기로 했다.

또한, 스포츠와 연계된 관광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복합 스포츠 문화관광 타운 △호남제일문 스포츠 문화관광 광빛의 광장 및 지하주차장 광장 관광 상품화 등 총 9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오는 2026년까지 건립이



우범기 전주시장은 30일 호남제일문 인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복합스포츠타운 대표관광지 조성 현장 브리핑을 열고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체육시설 집적화 등 추진... 2040년까지 1조4000억 투입  
지원 프로그램으로 국제대회 유치·스포츠 교실 등 계획

확정된 야구장과 실내체육관 등 체육 시설 집적화를 늦어도 오는 2030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민간투자 지구 등 주변 시설 사업은 오는 2040년까지 완료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 계획 중인 민자투자지구의 경우 전주 방문 관광객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복합리조트 성격의 대규모 사업으로, 리조트와 더불어 주변 조촌권을 활용한 수변 힐링공간, 먹거리와 휴식 공간을 갖춘 부대시설, 캠핑을 겸한 스포츠 숙박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도로로 단절된 호남제일문 주변에 대해서는 기존 기린대를 지화화하고, 대규모 열린 광장을 조성해서 가막축제나 음식 축제, 음악 공연 길거리 농구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상시 열리는 곳으로 만들 계획

이다. 이를 통해 이곳에 전주 북부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복합스포츠타운 대표관광지 조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각종 국제대회 유치 △프로스포츠 지역 연고 유치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스포츠 교실 운영 등도 계획 중이다.

시는 조만간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와 실행방안 등 관련 용역을 발주해 종합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한옥마을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추가해 국가 대표 관광도시로 나아갈 것"이라며 "앞으로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추진해서 전주 대변혁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힘 없이 달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도, 내달 3일까지  
럼피스킨병 백신 일제 접종

전북도가 럽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소를 대상으로 럽피스킨병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일제 접종은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도내 한우·젖소 약 49만 6,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부안 발생 방역대내 55천두를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추가로 배부된 긴급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함으로써 예방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전북도는 접종반(73개반, 204명)을 확대 편성하고 시·군 수의사 등원해, 전북도 수의사회와 협조해 신속히 접종 완료할 예정이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럼피스킨병 확산방지를 위해선 농가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배접한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접종과 함께 음혈 곤충 방제 및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30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이차전지 글로벌 기업 롬바이그림의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하여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유상열 롬바이그림 총재 겸 롬바이코리아 대표이사기 투자협약식을 갖고 있다.

## 이차전지 글로벌 기업 새만금에 1조2000억 투자

롬바이코리아, 새만금청·전북도·군산시 등과  
전구체·황산염 생산공장 건립 투자협약 체결  
올 연말 착공... 2026년까지 단계별 준공 목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전북·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30일 이차전지 글로벌 기업 롬바이코리아(ROMBAY)가 단독 투자 설립한 롬바이코리아(ROMBAY)와 전구체 및 황산염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유상열 롬바이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롬바이코리아는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올 연말 새만금 국가산단에 전구체 생산공장을 착공하기로 했다.

약 16만㎡(4만8,000평) 부지에 총 2단계로 추진하는 이번 투자는 올해 말 착공해 1단계는 2025년 상반기 2단계는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80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이 채용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국내의 이차전지 분야 선도 기업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명실상부 이차전지특화단지로서 부상하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현재 공을 들이고 있는 대규모 투자 건립

이 기업 밀착관리와 맞춤형 지원으로 하반기 중에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롬바이코리아의 신규 투자를 적극 환영한다. 기회의 땅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이차전지 집적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전북으로 입주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전북 경제 도약에 기여하고 성공 신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롬바이코리아의 대규모 투자를 환영하며, 이차전지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로 새만금산단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이번 투자 역시 우리 지역의 고용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상열 롬바이코리아 대표이사는 "새만금이 롬바이그림 글로벌 진출의 참단기지로 우뚝 설 것이며, 세계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김재훈 기자·군산=김판근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2023년도 여행은  
풍요롭고 찬란한 고창에서

고창군

풍요롭게 찬란하게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구시포 쌍둥이등대